

## 귀촌일기- 여름나기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초여름까지는 매일같이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의 피해를 키우더니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더위가 한 달째 이어져 농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초여름까지도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던 과일이 여물지 못하고 낙과가 많았으며, 딸기나 체리 등은 당도가 떨어지며 상품 가치가 저하되어 폐기 처분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논농사의 경우는 7월부터 비가 멈추고 강한 햇빛으로 일조량이 풍부해 벼의 포기치기 성장의 상태가 예년보다 좋은 편이다. 현재의 기후조건이라면 올해 논농사만큼은 풍작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농촌의 여름은 모든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기후변화가 심각해 한 낮의 기온이 평균 35도를 넘고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요즘은 고추를 수확하는 철이라 한여름에도 농민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추는 없드려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요즘은 힘든 작업을 이겨내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바퀴를 이용하여 앉아 이동하면서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들이 많다. 불볕 더위지만 일조량이 풍부해 참깨와 콩, 고구마 등의 발작물은 튼실하게 여물고 있다. 논농사는 지금이 특히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시기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물관리로 벼가 배동하기 시작하면 수분이 많이 필요해지므로 눈에 물을 충분히 채워주어야 한다. 이때 이삭 거름과 병충해 예방에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요즘은 농약도 친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중독 피해는 거의 없어졌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인지 다행히 예년에 비해 병충해 발생도 적은 편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농촌의 생활은 풀과의 싸움이다. 발농사는 대부분 비닐을 덮고 농작물을 파종하지만 비닐과 비닐의 고랑사이로 나는 풀은 아무리 뽑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란다. 며칠만 게으름을 피우면 밭둑이고 논둑이고 풀로 뒤덮혀 버린다. 마당이나 뒤뜰도 마찬가지이다. 예초기로 베어내고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풀로 덮혀 버린다. 필자도 풀 때문에 고민하다 올해는 과일밭에 잡초매트를 깔았다. 비용이 제법 들어가긴 했지만 풀메기 작업을 안해도 되어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잡초매트라도 풀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귀촌한 지가 12년이 되

어가고 있지만 올해 더위가 가장 심한 것 같다. 요즘은 농촌 마을회관이 피서지 역할을 한다.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 한낮에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 공동경비로 전력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지내는 것 보다 경제적이다. 요즘처럼 더위가 심할 때는 일하고 나서 몇 번이고 지하수로 등록을 하고 나면 더위를 견딜 수 있다. 농촌의 여름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홀했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며 가을에 심을 배추 모종을 파종하기도 한다. 발작물 중에서는 요즘 포도 농사가 바쁜 철이지만 고구마, 고추, 참깨, 콩 등의 작물은 여름에 한창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계절이다. 이처럼 농촌은 먹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제공해준다. 땅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정성들여 가꾸면 농부에게 알찬 수확을 가져다 준다.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연환경과 수확의 기쁨이 크다. 한 여름에 쏟은 땀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움을 주는 농촌을 배우고 익히면서 농사일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귀촌해서 농사짓는 하루하루 삼복더위가 육체를 지치게도 하지만 들판에서는 온갖 생명이 성장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좋다.

### 社 說

##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한다

### 28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전망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사기는 개인 간 거래가 분명하지만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만든 이 법안이 피해자 보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 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70~80%는 40세 미만 청년층이라고 한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든 것은 법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다.

국회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 합의로 만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지난 5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의 산물이다.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의정갈등 멈추고 코로나 재유행 맞서야

### 전공의 미충원·파업 우려도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미복귀·미충원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현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역내 의료보건노동계가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서면서 향후 파업으로 치닫는다면 의료 공백 대란까지 우려된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장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를 통해 “지금 코로나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할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수준인 주당 35만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장기간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신규 충원도 되지 않았다. 광주 수련병원들은 이에 대비해 올 하반기 전공의 재모집에 나섰지만 또 다시 지원자가 없었다. 의료 공백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열린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요 병

원 보건의료 노동계는 파업 위기에 몰려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부산하 조선대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순천성가톨릭병원 등 지회 3곳은 20~22일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나선다. 전공의 비복귀와 채용 실패, 코로나19 재유행, 여기에 의료 인력 파업까지 더해진다면 추석 즈음이면 말 그대로 ‘지옥’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위기다. 의정갈등 속에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인력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해 예비비 3268억 원을 확보했다. 광주시 등 지자체도 전염병 감시 강화 등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의료현장의 위기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전염병 대비는 불가능하다. 의료현장에 남아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코로나 재유행 상황이 전가 되서는 안된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임을 안다면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갈등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위로 슈퍼문이 떠 오르고 있다.

AP/뉴시스

### ◆ 서석대

최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신화를 기록한 양궁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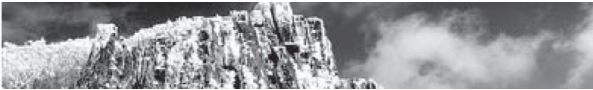
그들의 엄청난 집중력과 승부에 대한 강한 욕망, 흔들림 없는 굳건함 등은 경기를 보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뒤이어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대한민국 양궁협회에 대한 칭찬과 큰 존중도 뒤따랐다.

대한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국가대표는 이전 성격은 배제되고 철저하게 현재의 경쟁을 통해서만 뽑는다.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미리 찾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 훈련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대표(초)-청소년대표(U16)-후보선수(U19)-대표상비군(U21)-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런 체계화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의지가 모여져 이뤄졌겠지만 그 중에서도 양궁협회의 수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세인들의 중론이다.

정 회장은 대담성, 혁신성, 포용성 등 3가지를 갖춘 리더로 규정된다. 정 회장은 정주영 선대회장, 정몽구 명예회



장이 구축한 양궁 발전 기반을 더 고도화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스포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각과 혁신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한국 양궁 체계를 고착화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회 때마다 새로운 훈련 장비와 기술들을 적용했고, 이번 파리대회를 위해서는 개인 훈련을 도와주는 로봇을 비롯 기존 기술은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을 지원했다.

강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능이 있다고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받쳐줄 사회, 그 속에서도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만 인재들이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양궁협회의 시스템에 박수를 치다가도, 금메달을 목에 건 상태로 배드민턴 협회에 불만을 말하던 안세영 선수가 떠올라 어쩐지 서글퍼지고 먹먹해진다.

그녀가 배드민턴이 아닌 양궁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협회가 양궁협회 같은 시스템을 채용했다면 어땠을까.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알고 있을까? 싫어서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 全南日報                           |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br>진실보도 실천<br>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www.jnilbo.com<br>m.jnilbo.com | 정치부                    | (062)510-0340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br>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br>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